

현대건축의 비판적 지역주의 경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rend on Critical regionalism in Modern Architecture

유방현 / Yoo, Bang-Hyun

Abstract

With the continued integration through scientification and the progress in the technology of construction around the world, Korea's inability to stay within the mainstream of the movement has put it in danger of losing it's very identity.

As such, Korean cityscapes are filled with overwhelming prevalence of buildings and constructs void of national identity but rather reflective of unconditional application of the western standards of architecture which has so far been the compass of the movement.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he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world view concerning of architecture the critical regionalism through the examination of the background of theory which reflect the architectural Kenneth Frampton, and also through Ricardo Legorratea, Charles Correa, Antoine Predock's analysis. Furthermore, this research hopes to explore and offer a methodology through which a unique Korean identity can be established in Korea's Modern architecture.

키워드 : 비판적 지역주의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서구의 현대건축은 CIAM의 해체로 말미암아 거의 50여년 간 세계를 지배해 온 모더니즘의 국제주의 양식에서 벗어나 다원화 양상을 띄고 발전하고 있다. 근대건축의 실패와 이데올로기, 전통, 기술에 대한 세계관의 변화는 건축에 있어서 포스트모더니즘, 신허리주의, 비판적 지역주의, 하이테크의 경향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80년대 이후 포스트모던건축의 혼재된 상황하에서 문화적 위기에 대응하며 케네스 프램톤(Kenneth Frampton)은 비판적 지역주의를 주장하였다. 비판적 지역주의는 건축의 보편성을 추구하면서 그 지역의 시간적,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콘텍스트(Context)를 의식하는 건축 태도이다. 건축이 갖는 장소성의 의미를 생각할 때 그 지역의 콘텍스트란 가장 중요한 건축어휘가 될 수 있으며, 의미 있는 환경을 만들고, 건축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세계는 과학화와 기술의 진보에 따라 점점 통합화되고 있으며 문화 주변국인 한국의 건축은 그 중심세력에서 밀려나 완전히 정체성을 상실하게 될 위기에 처해있다. 즉, 세계 건축의 보편성을 이끌어

가는 서구 건축의 모방 내지는 무조건적인 수용으로 국적 불명의 건축들이 난무하는 황폐한 도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케네스 프램톤의 건축사상을 대변하는 비판적 지역주의에 관한 이론의 배경을 살펴보고 작가 및 작품분석을 통하여 비판적 지역주의의 건축세계관을 이해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서는 비판적 지역주의가 한국 현대건축의 주요과제의 하나인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그 방법론으로서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비판적 지역주의란 용어는 디미트리스(Dimitris)와 수잔나 안토나카키스(Susana Antonakakis)의 작품에 관해, 알렉산더 조니스(Alexander Tzonis)와 레아니 리파이브르(Leani Lefavre)가 쓴 에세이 「격자와 통로」(The Grid and The Pathway)라는 글에서 처음 사용한 것을 케네스 프램톤이 인용한 것으로, 케네스 프램톤은 그의 저서 'Modern Architecture : a critical history'에서 이론적 진개를 하고 있다.¹⁾

본 연구는 케네스 프램톤의 이론을 바탕으로 비판적 지역주의의 세계관을 살펴보고, 작가와 작품으로는 비판적 지역주의 경향의 미국의 안토니 프래독(Antonie Predock), 멕시코의 리카르도 리칼레타

정회원, 한국건축가협회 사무국장

1) Kenneth Frampton, 'Modern Architecture : a critical history', London, Thames and Hudson, 1980, 1985

(Ricardo Legorreta), 인도의 찰스 코레아(Charles Correa) 등의 작품을 분석하여 비판적 지역주의의 건축어휘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비판적 지역주의의 세계관

2.1 이론적 배경

비판적 지역주의는 전위적 의미에서 식별 가능한 예술적 운동이라기 보다는 비판적 현상이다. 그리고 케네스 프렘튼은 그의 비판이론이 직접적으로 마르크스적 분석 방법이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프랑크 프루트 학파(Frankfurt School)의 비판이론(Critical Theory)의 영향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즉, 계몽주의의 어두운 측면 - 인간이 자연세계 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낸 생산물로부터도 소외되기 시작한 상황에 대해 예리하게 인식하게 된 것이다.²⁾ 인간의 소외 문제를 다룬 프랑크 프루트 학파의 주요 문제 의식은 근대 서구 문명을 이끈 이성과 그 보급 운동이었던 계몽주의가 왜 실패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폴 리쾨르(Paul Ricoeur)은 “인류의 진보에 따른 세계화의 현상을 전통문화, 내지는 위대한 문명의 파괴를 의미한다. 단일의 세계문명은 동시에 과거의 여러 위대한 문명을 만든 문화적 자원들을 희생한다. 현대화를 위해 국가의 존재 이유였던 오랜 문화의 과거를 버리는 것이 필요한가?”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어떻게 오래된 문명을 되살리며 동시에 세계적 문명에 참여하는가 하는 역설적 명제를 내세웠다.³⁾ 사회학자인 임마누엘 왈러스타인(Immanuel Wallerstein)은 “문화와 발전은 적자생존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조적인 관계이며, 문화는 발전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제3세계 국가들이 발전의 도상에서 좌절한 것은 자신의 고유한 문화를 보전하지 못한 채, 맹목적인 서구화로만 내달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였다.⁴⁾ 모더니즘 건축은 문화발전이 이루어낸 통합원리로서 건축의 보편성이며 기능적이

며, 합리적인 건축성향을 말한다. 이러한 국제주의 양식은 곧 전통문화의 아이덴티티와 전래 환경의 고유성을 파괴하는 힘이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다. 따라서 보편성이 지역문화와의 교류를 통하여 상호간 흡수, 통합되면서 자생력을 갖게 될 때 건축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뿌리깊은 전래문화와 보편적인 문명사이에 내재한 역설적인 명제를 해결하는 것이 비판적 지역주의의 세계관이다.

2.2 지역주의와 비판적 지역주의

케네스 프렘튼은 처음부터 지역주의와 비판적 지역주의를 구별하여 사용하지는 않았다. 비판적이란 접두어가 첨가된 지역주의는 그 기본 목표를 보편적 문명의 충격과 개별적인 장소의 특색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도출해낸 제 요소를 화해시키는데 있다. 처음 비판적 지역주의란 용어를 사용한 알렉산더 초니스는 「격자와 통로」에서 “지역주의란 보다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건축에 비하여 개별적이며, 지역적인 건축적 특성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⁵⁾ 제 2차 세계대전 후 합리주의 건축에 대한 반발의 경향으로 나타나게 된 지역주의는 합리주의의 결함을 보충하려는 다양한 건축관이 내포되어 있다. 즉, 환경과의 조화, 전통의 고려, 자연주의, 표현주의의 실험 등이다. 지역주의 옹호자들은 그 지역의 전래의 건축형태, 재료, 시공방법 등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건축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형태언어로, 때로는 풍부한 조형으로 표현된다. 사실 지역주의에는 보다 복잡한 건축관이 포함되어 있어 확고한 이데올로기를 가진 어떠한 이즘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작가 자신의 표현 가능성의 분출구라고 할 수 있다. 비토리오 람푸아니(V.M.Lampugnani)는 지역주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⁶⁾

1. 건물은 신중하게 경관 속에 배치되며, 그 조형은 지역적 분위기(Genius Loc)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2. 규모는 ‘인간적 스케일’에 의한다. 기념비성을 피하기 위해 대규모의 건축은 작게 분절한다.
3. 벽돌, 자연석, 목재 같은 자연적인 건축재료가 이용된다.
4. 건설 방법 혹은 구조 디테일은 수작업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공장 제품은 일반적으로 거부된다.
5. 형태언어는 지역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것이 표현주의로서 과장되는 경우도 있으며, 추상성은 배제된다.

알렉산더 초니스는 비판적 지역주의의 의미와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19C 중엽의 낭만적 지역주의는 오늘날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Viollet le Duc가 La Vesette건립에서 보여준 설계개념을 시대착오적인 관상의 본보기라고 비평하고 있다.⁷⁾ 이러한 비판적인 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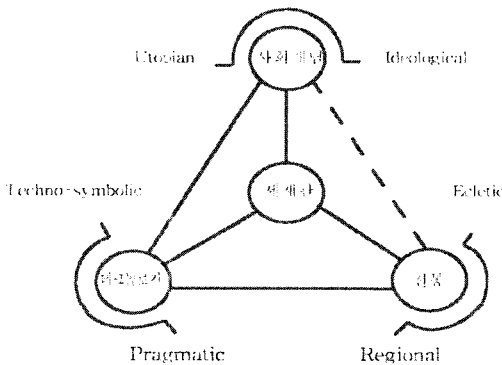


그림 1. 비판적 지역주의의 건축적 세계관⁵⁾

2) Kenneth Frampton, 鄭英誌, 尹茂烈 譯, 앞의 책, 세진사, 1987

3) 앞의 책, 서문에서 케네스 프렘튼이 인용하였다

4) 강역, 현대건축에서 지역주의가 지니는 가능성 그리고 우리, 이상건축, 1993.10

5) 沈智賢, 유럽 현대건축의 多面的 디자인 傾向에 관한 研究, 홍대 석사,

6) A. Tzonis & L. Lefaivre, 'Why Critical Regionalism Today?', A+U, 1990.5

7) Vittorio Magnago Lampugnani, 金景浩, 李康豪 譯, '현대건축사조개관', 기문당, 1990

8) A. Tzonis & L. Lefaivre, 앞의 책

도가 지역주의와 비판적 지역주의의 차이를 보여주는 실제의 개념이다. 결국, 지역적 요소를 수용하면서도 부분적으로는 거부하는 태도를 지닌 보편성을 추구하는 비판적 입장을 말하는 것이다.

2.3 비판적 지역주의의 건축언어

비판적 지역주의자들의 건축에서 나타나는 본질적 특성은 두가지 관점에서 나타난다. 하나는 근대건축의 허식적이고 경직된 속성에 대한 비판적 자세이고, 또 하나는 건축물에 내포되어 있는 지역주의 전통의 정통성이다. 이와 같은 비판적 지역주의의 창조적 요소는 비통속화라는 방법을 통해 자의식적인 기능적 고찰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프램톤은 비판적 지역주의의 기본 목표를 보편적 문명과 개별적인 장소의 특색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추출된 요소들간의 충격을 완화시키는데 있으며, 현대건축이 한층 비판적 자세가 되기 위해서는 계몽주의의 진보적 신화로부터, 또는 진보적인 테크놀러지의 낙관주의나 노스텔지어적인 역사주의, 공업화 이전의 과거의 건축형태로 회귀하려는 퇴행적 충동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동시에 보편적 기술을 신중하게 이용하면서 저항하는 문화와 독창성 있는 문화를 전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태도는 사라져 버린 지방적 특색을 되살리고자 하는 소박한 감성적(낭만적) 지역주의나 대중주의적 자세와는 구별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⁹⁾ 프램톤은 이러한 비판적 지역주의의 실천적인 태도로서 건축적 자세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¹⁰⁾

1. 독립적인 오브제의 건축을 강조하기보다는 그 대지에 건설된 구조물에 의해 설정된 지방성을 강조하는 건축을 표명한다.
2. 건축물을 어울리지 않는 배경화법으로 처리하기보다는 구축적(tectonic)으로 처리한다.
3. 구조물이 놓여지는 3차원적인 매트릭스의 지형으로부터 구조물에 그 지역의 빛을 다양하게 연출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지역성과 대지의 독특한 인자를 강조한다.
빛은 작품의 볼륨과 구축적 가치를 드러내는 주요 매개체이며, 기후 조건에 대한 반응도 필수적이다. 따라서 공기조화시설을 이용하는 안이한 보편적 문명의 경향에 대해 비판적이다.
4. 시각적인 것만큼 촉각적인 것을 강조한다.
시각은 물론, 조명, 열, 냉기, 습도, 공기 흐름의 순환도, 다른 볼륨에 의해 발산되는 다양한 향기, 울림, 바닥 마감에 의해 생기는 여러 가지 감각 등과 같은 보조적인 지각 경험을 의식한다.
5. 지역풍토의 감각적 모방을 경계하며, 재해석된 풍토적 요소를 전체에서 분리적 요소로 삽입한다. 때로는 낯선 근원으로부터 토속적인 요소를 끌어온다.
6. 보편적인 문명의 낙관적인 충격을 피할 수 있는 문화적인 틈새에

서 반영하여야 한다.

7. 초기 현대운동의 순진무구한 유토피아나 규범적인 적정화로부터는 거리가 있어야 한다.

3. 작가와 작품분석

3.1 리카르도 리고레타(Ricardo Legorreta)

스페인 식민지였던 멕시코는 독립 이후 1920년대 예술혁명을 맞으면서 멕시코 전 지역은 벽화운동으로 뒤덮이게 되었다. 멕시코 건축가들의 관심사는 19C 중엽 이래 멕시코를 지배해 왔던 보자르풍을 배격하고 근대건축에 바탕을 두면서도 과거의 스페인 문화를 소생시키고 지방의 토속건축을 재평가하는 것이었다. 자연히 멕시코 건축은 일찍부터 지역주의적 성향을 지니고 있었으며 독자적인 발전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것이 멕시코 건축이 선진적인 위치에서 아이덴티티를 찾을 수 있던 이유이다. 멕시코 건축은 올림픽 개최 이후인 1950년대부터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는데 루이스 바라간, 페릭스 칸텔라, PR 바스케즈 같은 건축가들을 배출하였다.

리카르도 리고레타는 그 중에서도 가장 멕시코적인 건축가라 할 수 있다. 그는 근대건축의 모더니티를 수용하면서도 동시에 멕시코 특유의 장소성을 자신의 건축에 담고 있어서 그의 작품은 신비함, 경외감, 극적인 것과 감각적인 풍부함으로 가득 차 있다. 그의 작품이 중요한 것은 설계사무소의 철저한 직업주의와 떨어져서 건축주의 요구를 예술적으로 풀어 나가는데 있는데 이것은 리고레타가 공간적 비례와 진보를 통해 발전시켜 온 것과 재료와 디자인 어휘의 일관된 사용 등에 의한 미학적 요소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그 근원은 다양하며, 살아있는 건축물의 전통에서 볼 수 있다. 즉, 전통을 현대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는데 있어서도 그가 전통을 표현하는 방법은 멕시코적이며 그가 끌어들이는 전통들은 멕시코적인 향기와 형상을 지닌다.

리고레타는 1931년 멕시코에서 태어났다. 멕시코 국립대학에서 건축공부를 하였으며 호세 빌라그란(Jose Villagran¹¹⁾)사무실에서 10년 넘게 근무하였고, 후에는 그와 파트너로 일하였다. 1961년에는 개인 사무소를 개설하고 멕시코국립대학 건축과 교수로도 근무하였다. 그는 스승인 호세 빌라그란으로부터 근대건축의 교리와 이론을 배우고, 미술가인 헤수스 레이스(Jesus Reyes)로부터는 멕시코 토착건축이 지닌 아름다움과 생동감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배웠다고 말한다¹²⁾

리고레타의 건축에서 가장 먼저 주목하게 되는 멕시코건축의 특성은 높은 벽이다. 그는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담이다. 나는 그것을 건축요소로서뿐 아니라 하나의 상징으로 사용한다'고 말한다.

11) Jose Villagran은 멕시코의 뛰어난 건축가로서 San Carlos 아카데미의 교수를 지냈고 멕시코 국립대학에서 로 꼬르뷔제의 합리적인 디자인과 모더니스트들을 소개했기 때문에 '멕시코 근대건축의 아버지'라고 불린다. 멕시코 건축가중에서 그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이며, 리고레타는 오늘날도 그를 '제2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한다.

12) Sydney H. Brisker, Wayne Attoe, 리카르도 리고레타의 건축, 풀러스, 1991.6, p.131

9) Kenneth Frampton, 鄭英喆, 井栽熙 공역, 앞의 책

10) 앞의 책, pp.598~600.

그의 벽은 다른 많은 벽화가들의 방식과 같이 논쟁적이지 않다. 벽의 건축언어는 Void보다는 Solid의 우월함, 3차원적 연속의 중요함, 벽이 만드는 공간을 위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색, 멕시코의 수도원과 농가에서 마주치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선호 등을 나타내고 있다.

스페인 식민지시대 이전의 의식이 자리지던 중심지역에서의 벽은 공간을 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부지의 종교적인 의미나 신비감에 기여하였다. 스페인에서 벽은 방으로서 시가 물레에 새겨져 있고, 생활공간을 둘러싸기 위해 중성 주위에 있으며, 종교의식을 위해 교회 물레를 감싸서 마당은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식민지시대의 벽은 두 문화권이 만나 생긴 벽으로서 방어적 및 종교적 목적을 위해 세워진 16C 교회의 중정에서 볼 수 있으며, 촌락의 거리를 따라서도 보여지며, 토착건축에서도 볼 수 있다. 멕시코 벽의 전통은 리코레타의 건축 속에서 같은 감성을 지니나 현대적인 방식으로 지속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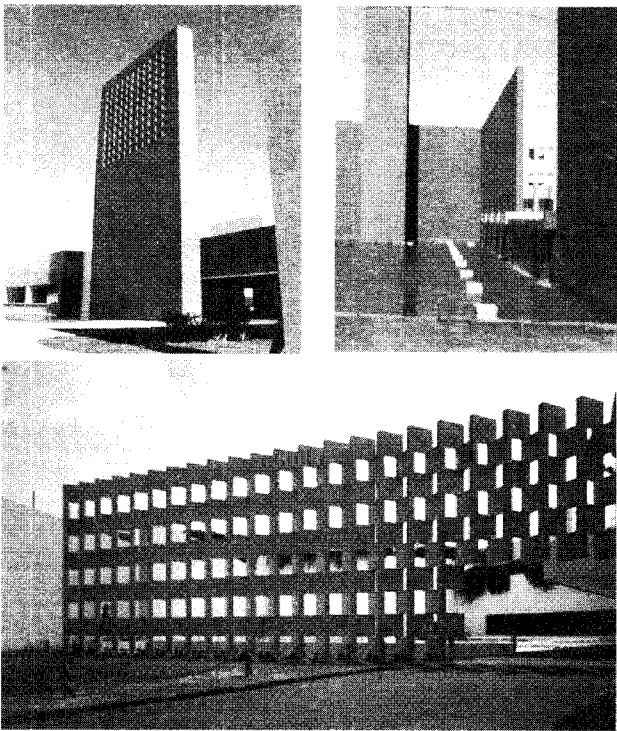


사진 3. 카미노 레알 호텔, 가로변에서 바라다 본 호텔 입구와 로비 앞의 커다란 벽면 디자인

또 그의 건축에서 발견되는 보편성은 강한 색채와 질감이다. 그에 색채는 하나의 건축적 표현 수단이 아니라 재료 그 자체이며 강력한 색채 역시 멕시코 특유의 것이다. 리코레타는 벽에서 개구부를 명료하기 위해 색채를 사용하며 커다란 메스의 엄격성을 깨뜨리기 위해, 전경과 배경 사이에 깊이감을 주기 위해 멕시코인들이 사랑하는 신비감을 도입하기 위해, 시각적 경이감과 때로는 완전한 광선을 위해서 색채를 사용한다. 그는 또한 전통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밝은 황색, 하늘색 또는 환기관 진홍색을 벽체에 채색하여 육중한 벽의 실체에 도전하며 예술적으로 풍부한 작품을 전체 벽 평면으로 확산

시킨다.¹³⁾

리코레타의 작품이 모던하게 또는 전통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멕시코인의 에서 발견되는 살아있는 교환을 형태적으로 차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으로부터 원리와 정신을 도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3.2 찰스 코레아(Charles Correa)

찰스 코레아는 1930년 하이드라바드에서 태어나 미시간대학과 MIT에서 건축을 공부했다. 1958년 부베이에 건축사무소를 개설하여 현재까지 사바르마티 아쉬람의 마하트마 간디 기념관, 자이푸르의 자와하르 킨라 켄드라, 마드야 프라데시의 주의회, 델리, 부베이 아메다바드 지역개발과 주택 등 활발한 작업 활동을 하고 있다.

저비용 주택 건립사업의 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그는 특히 빈곤층을 위한 최저의 주택 양식개발에 많은 기여를 했다. 1985년에는 국립도시화위원회 의장으로 일하였고, 1974년에는 런던대학에서 강의를 했으며 1983년에는 왕립예술학회에서 토마스 루빗 강의를 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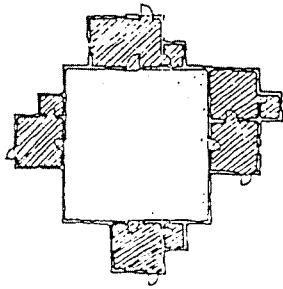
인도 내에서의 개척주의적 건축 및 도시계획 작업을 높이 평가받아 리더십을 주제로 한 1974년 7월 타임지 커버스토리에서 세계적인 인물 150인중 한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1979년 AIA(미국건축가협회)의 명예회원 자격을 얻었고, 1984년 RIBA(영국건축가협회)에서 금메달을, 1987년 IIA(인도건축가협회)의 금메달, 1990년에는 UIA(국제건축가연맹)의 금메달, 1994년에는 일본예술학회 건축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화려한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는 찰스 코레아는 인도라는 가난한 나라의 건축을 세계의 건축 속에 한 단계 올려놓는 역할을 했다.

그의 건축은 하늘에 대한 숭배와 신성함으로 이를 향해 열려 있는 개방 공간으로부터 시작된다. 인도처럼 무덥고 습한 기후에 개방된 옥외공간은 가장 쾌적하고 실용적이며 무한한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라고 말한다. 개방공간은 인도 전역의 전통마을과 도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인도인들의 삶의 본질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개방공간이 만들어 내는 상징적 의미는 유연하고 점증적이며 미니멀리즘적 수단을 통해 거대한 공간적 풍요로움을 만들어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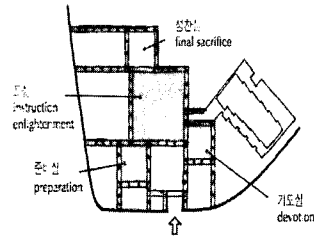
상징적 의미가 한층 발전된 양식은 소위 뒤집힌 양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인디라 간디여사를 위한 진홍 농가 프로젝트(1972, 계획안, 그림 2)로 이곳의 주요무대는 진홍벽을 높이 둘러친 정사각형의 마당으로 중심코어의 명료함을 보여준다. 즉, 안팎이 뒤집힌 양말에서 유추된 형태다. 또 한 예로 살마카오 교회<그림 3>에서 보이는 명상의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은 보다 융통성 있게 확장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시각적으로 고요한 공간을 제공한다. 이처럼 안팎이 뒤집힌 것 같은 건축양식은 인도처럼 수시로 예산과 공사기간이 변하는 곳에 안성맞춤이다. 건축의 기본요소인 벽을 먼

13) 앞의 책, p.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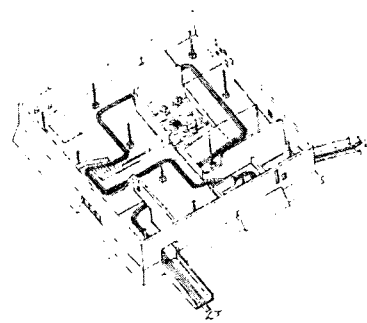
저 짓고 나머지 구성요소를 그 다음에 건축하면서 예산과 공사일정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14)



〈그림 2〉 카푸르 게스트 하우스



〈그림 3〉 살바카오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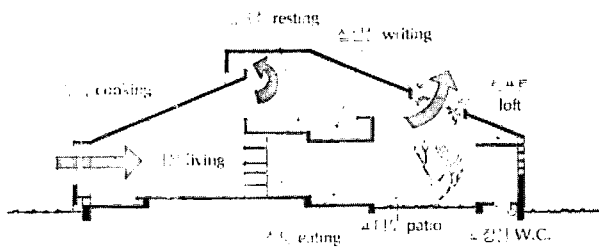
〈그림 5〉 델리 베틀 전서관

하늘을 향해 열린 공간은 주택에서도 핵심적인 공간이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가치가 있다. 이곳은 부업으로 닭이나 염소 등을 기르는 주민들의 생활 터전이 되는 것이다.

코레아의 또 다른 건축언어는 에너지 절약이다.

현대화된 공기조화시설등은 인도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법이 인도건축을 발전시키고 동질성을 창출하는 도구가 된 것이다. 예를 들어, 덥고 건조한 인도 북부에서는 대부분의 주택이 공동의 경계벽을 가진 좁은 형태를 띠고 있다.

길다란 양측면에는 열이 들어올 만한 여지가 없으며 신선한 공기와 빛은 짧은 쪽 끝과 내부의 틈을 통해 들어온다. 이러한 양식을 잘 변형시키면 열과 공기의 대류현상을 통해 온도를 조절하는 단면을 개발 할 수 있다. 더워진 공기가 천장의 경사진 표면을 따라 위로 상승하면서 꼭대기에 있는 통기구를 통해 빠져나간다. 따라서, 빠져나간 공기를 대체하기 위해 아래층으로부터 신선한 공기가 들어온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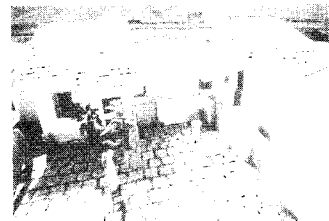


〈그림 4〉 튜브 하우스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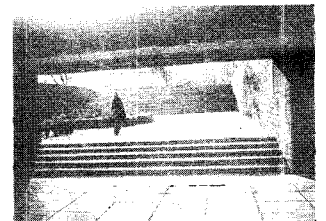
이처럼 뛰어나고 독창적인 자연환기방식은 지역주의 건축에서 보여주는 개별성이다. 이와 함께, 델리의 베틀전서관에서 보여주는 보행자 통로<그림 5>, 이동축, 낮은 건축들<사진 3>이라는 주제는 영국문화협회에 와서는 역사를 만들어 나간 신화적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

14) Charles Correa, 하늘의 축복, 건축과환경, 1997.9, p.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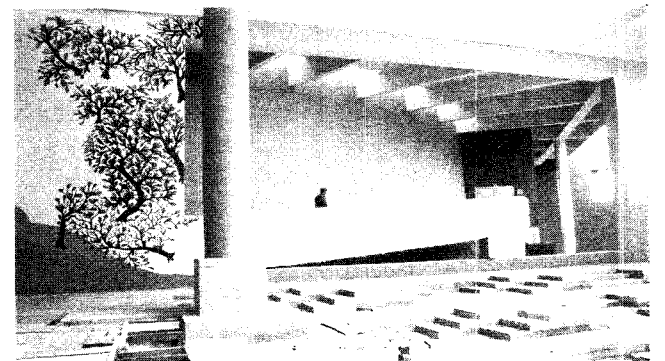
찰스 코레아의 또 하나의 건축적 패러다임은 은유를 추구하는 것으로 하늘이 갖는 형이상학적인 측면이나 고대 성자들의 깨달음을 얻기 위한 은둔을 연상시키는 공간이 복합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마드야 프라데시 주의회청사인 비단 바반(1980-1997, 사진 6)은 아주 복합적인 연결 통로와 하늘로 열린 공간을 둔 건물이다. 이 건물은 보팔 중앙의 언덕 정상에 위치한 부지와 인접해있는 뉴델리의 회 건물의 영향으로 원형을 띠게 되었다.



〈사진 4〉 증정을 중심으로 늘어진 7체의 집들, 벨리푸르 증축식 공동주거



〈사진 5〉 바라트 바반



〈사진 6〉 비단 바반 주의회의 내부

인도 과학대학의 캠퍼스인 방갈로어의 고등과학연구소(1990-1994)는 부지 중심에 숲이 있고, 이 숲 주변으로 석조담을 둘러 과학자들을 위한 연구실, 세미나실 거주 영역을 두었다. 과학자들은 석조벽을 통과하면서 가운데 숲속에 있는 하늘로 개방된 공간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곧 현자들이 명상을 위해 숲으로 들어가는 은둔을 연상시키는 것이다. 하늘이 갖는 형이상학적인 측면은 자이푸르의 자와하르 칼라 켄드라(1986-1992)와 푸네의 인터유니버시티 천문학 및 천체

물리학 센터(1988-1993)에서도 나타난다. 이 두 개의 프로젝트는 모두 우주의 모델<그림 6, 7>로서의 건축을 추구하여 실용적인 프로그램상의 요구 조건을 넘어선 초월적 실재를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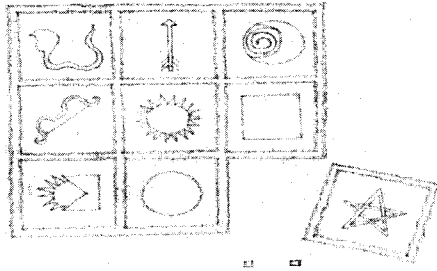


그림 6 행성의 상징을 보여주는 평면도

이러한 찰스 콜레아의 건축언어들이 비판적 지역주의에서 추구하는 지역성, 전통성의 현대적인 해석이라고 보여진다.



그림 7 고대 아이어 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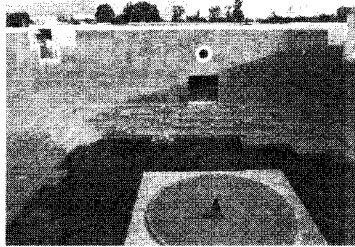


사진 7 자외하르 칼라 캔드라 - 쿤드

3.3 안토니 프레독(Antoine Predock)

1937년 미국 중서부에서 태어난 안토니 프레독은 18세때 앨버커키로 이주하였다. 뉴욕 킬링메이대학에서 건축 공부를 했고 미술과 부흥을 공부하였다. 그의 졸업 작품은 가장 설계였으며 부흥가와 결혼해 부인과 공동으로 부흥단을 이끌기도 하고 비행기 전문회사의 엔지니어로 일하기도 했다. 앨버커키는 아메리카 원주민인 아나사지의 분고장이었는데 과거에 대한 감상적인 향수에 부응하여 지역당국은 이곳에 새로운 방법으로 토속적인 전통을 모방하도록 요구했으며 이에 따른 지속한 결과를 프레독은 몹시 경멸했다고 한다. 그는 땅과 빛, 의식과 변화, 토속에 내재되어 있는 매스, 음영, 자연 환경의 원리로부터 받은 영감을 유기적으로 발전시켰다. 프레독은 가족 옷에 1951년형 오토바이를 타고 사막을 가로지르거나 반바지 차림에 롤러블레이드를 타고 거리에 나서기를 것을 좋아하고, 흰 머리카락, 밝고 파란 눈, 활기찬 생활, 모습에서 풍기는 신비로움으로 신세대 지도자 같은 분위기를 풍긴다고 묘사하고 있다.¹⁵⁾

프레독이 건축가로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애리조나 대학 템피캠퍼스의 벨슨예술센터(1985-89)설계경쟁에서 당선되고 부터 이다.

벨슨예술센터는 웅장한 스케일이 갖는 특성을 잘 보여주는 프레독의 가장 훌륭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극장, 스튜디오, 교육공간, 파티오가 기념비적으로 결합되어 대지 특성을 잘 살려주고 있다. 이 예술센터는 땅에 대한 깊은 성찰을 갖고 있었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와 루이스 칸, 그리고 콘크리트 형태에서의 빛의 연출이라는 르 꼬르뷔제의 후기 작품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이다. 이 작품에서 프레독은 그리이스 시대와 미래록의 개척적 시대로 되돌아가 그 토속적인 전통을 추상화하여 벽으로써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를 만들어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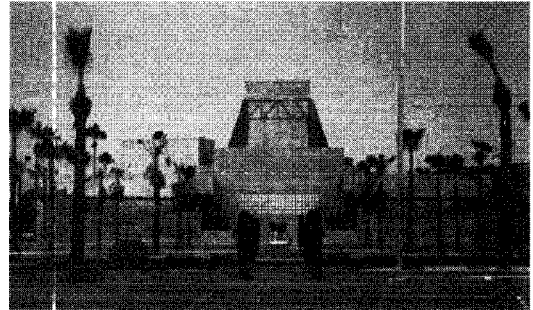


사진 8 벨슨 예술 센터

프레독은 대지를 해석하는 작업을 여행에 비유하였다. "건축과 여행은 하나의 혼합된 경험이다. 실제로는 가상으로든 전 세계 각 지역을 비교해 보고 각기 다른 분위기를 관찰해 보는 것 모두가 여행이다. 때때로 여행은 새로운 장소와 부딪쳐 이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게 한다. 집에서 내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기도 한다". 그의 설계작업 과정은 수많은 드로잉과 점토 모델 작업을 거치면서 형태를 만들어 나가는데 "이 모델들과 이차원의 드로잉들은 프로젝트를 통한 여행, 즉 실제의 부지에 대한 탐구의 기록이다. 따라서 상상의 여행 또한 건축여행이 된다"라고 하였다.¹⁶⁾

대지를 파악하여 그 위에 자리 잡을 건물의 형태를 유추하는 일은 바람, 태양, 환경의 영향, 문화적 기반과 같은 요소에 대한 이해를 수반하지만, 동시에 그 대지가 주도할 수도 있는 생명체들에 대한 상상도 뒤따르는 동시대만의 경험이며 일종의 시간 여행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은 부지에 대한 강한 애착을 나타내는 것이며 비판적 지역주의의 경향을 나타내는 건축요소인 것이다. 라타미의 와이오밍대학에 있는 미국유산센터 & 미술관(1986-1993)은 인공물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자연의 경관을 강화하고, 그 건물이 때로는 경관의 일부를 구성하도록 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서부 개척정신과 전설을 담기 위한 미국유산센터 설계에서 프레독은 와이오밍 대평원에 인간과 자연을 화해시키는 거대한 계단을 구축하고자 했다. 이 기대한 계단은 인디언의 티피를 연상시키기도 하고 몽고 유목민의 파오를 옮겨온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인디언의 산과 마을을 주제로 한 이 작품은 삶과 죽음, 하늘과 땅, 불과 영혼, 빛과 어둠 등의 신비로운 메시지를 던져 준다.

15)Michael Webb, 땅과 빛, 의식과 행성의 건축가, 건축과환경, 1997.4

16)Antoine Predock, 건축기행, 건축과환경, 199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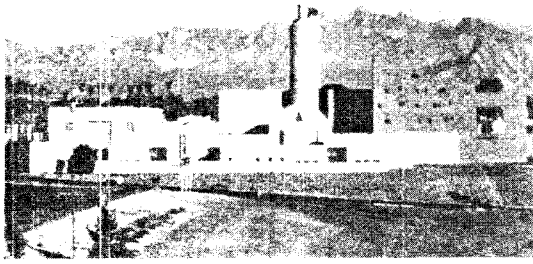


사진 9 라스베가스 도서관과 어린이 회관

라스베가스의 도서관과 어린이회관은 현란한 라스베가스에서 정스러운 공간을 만들고자 했던 프레이드의 생각이 잘 나타나 있다. 콜로라도 메사의 원주민 집단주거에서 유추해 온 듯한 원형의 탑과 정방형의 성, 원형 망루 등은 인디언들의 이상적인 부락생활을 어린이들에게 교훈하고자 한다.

프레이드의 건축언어는 광활한 대지에 펼쳐지는 스케일과 구성의 복잡성 가운데에서도 몇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자인스런 동선을 유도하는 가벽의 설정, 인디언 문화를 상징하는 삼각형, 사각형, 원통, 원추 등의 기하학 형태의 조화, 그리고 건물의 터전이 되는 대지의 신화를 담아 내는 건축이다.¹⁷⁾

4.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주의 건축은 토속적인 건축으로부터 형태의 모티브를 인용하여 지역 환경에 따라 특색있는 정체성을 갖는 건축을 형성하여 그 지역의 생명력에 바탕을 둔 건축경향이다. 지역적으로는 스칸디나비아 지역이나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 스위스 티치노지역 등에서 나타나는데, 그 지역의 기후나 문화적, 풍토적 특성이 건축에 반영된다.

비판적 지역주의는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근대건축에 대한 저항의 태도로 시작된 비판적인 흐름이라 볼 수 있다. 또한, 현대화 내지는 산업화의 흐름 속에서 문화의 중심세력에 휩쓸리지 않으려는 탈중심의 건축사상이며 건축이 갖는 장소성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고자 하는 건축태도이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건축태도가 고유 문화의 순수성을 고집하는 배타주의나 형태의 모방을 추구하는 감상적 낭만주의가 아닌 현대적인 건축언어로 표현된 세계적인 보편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의 모더니즘이 산업화와 인간소의 현상에 비판적이었듯이 비판적 지역주의도 근대화의 부작용과 세계 산업화에 비판적이다. 그러나 무조건 모더니즘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상호보완 관계에 놓여진다. 이처럼 세계적인 보편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동시에 성취한다는 역설적인 명제가 비판적 지역주의의 목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적 지역주의의 관점을 우리의 현대건축 상황에 비추

어 볼 때 그의 세계관과 건축태도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우리의 오래된 관습이나 가치체계, 생활양식에서 나타나는 전통문화, 건축생산의 기술조건 등이 한국건축의 지역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세계 현대건축의 보편적 가치를 수용한다는 점에서 보편성과 특수성 문제는 깊이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다. 보편성은 지배적인 우월한 현상이고 특수성은 한 지역에만 국한되는 하등한 가치체계라고 인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역적 특성을 표현함에 있어서 어떻게 한국 건축문화의 전통을 바르게 이해하고 재해석하여 건축언어로 표현하느냐 하는 방법론인데, 이는 각 지역의 문화형성의 틀을 역사적, 공간적, 사상적, 문화적, 경제적, 기술적으로 분석하여 그 속에서 나타낼 수 있는 건축어휘를 찾아내는 일이다. 여기에 보편적 가치가 더해질 때 한국 건축도 세계 무대 속에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김향원, 이상철, 사회와 아이덴티티, 문우사
2. Paul Frank, 건축형태의 원리, 김광현 역, 기문당
3. 沈智暉, 유럽 현대건축의 多元의 디자인 傾向에 관한 研究, 홍대 석론
4. L. Mumford, 예술과 기술, 김문환 역, 을서문화사, 1975
5. 박향섭, 20세기의 건축사조와 현대건축의 경향에 관한 연구, 홍대 석론 1980
6. A. Tzonis, L. Lefaivre, 'The Grid and the Pathway', Architecture in Greece, 1981.5
7. K. Frampton, 'The Isms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AD progile, 1982
8. 이광인, 1950년대 후반(CIAM붕괴)이후의 현대건축에 관한 연구(Broque적 경향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론, 1984
9. 최윤경, 현대건축에 있어서 Locality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론, 1984
10. K. Frampton, Modern Architecture : A Critical History, London, thames & Hudson, 1985
11. 이석희, 유럽 신타리주의 건축의 유형학적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홍대 석론, 1987
12. 이상해, '우리 건축의 보편적 가치정립을 위하여', 건축과환경, 1987.10
13. 신범식, 건축의 전환기적 양상에 관한 연구 : 18C후기 볼란서 건축을 중심으로, 한양대 박론, 1989
14. P. Portoghesi, 모더니즘 이후의 현대건축의 동향, 최두진, 선진 공역, 태림문화사, 1989
15. M. Lampugnani, 현대건축사조개관, 김경호, 이경호 역, 기문당, 1990
16. K. Frampton, 현대건축사(II), 정영철, 윤재희 역, 세진사, 1990
17. A. Tzonis & L. Lefaivre, 'Why Critical Regionalism Today ?', A+U, 1990.5
18. A. Tzonis, 건축적 사고의 구조, 이강현 역, 태림문화사, 1993
19. 권중남, '한국 현대건축에서 지역주의의 의미', 이상건축, 1993.10
20. Edward McNall Burns, Robert E. Lerner, Standish Meacham,
21. 서양문명의 역사(I, II, III, IV), 박상익 역, 소나무, 1994

<접수 : 1998. 11. 5>

17)문진호, 안톤 프리드의 건축세계, 이상건축, 1995.1, p.79